

전북대도약 향한 발걸음 분주

송하진 도지사, 김제 공공처리장·종자사업소 현장방문... 노고 격려·해법 모색

송하진 도지사는 28일 시군 방문 세 번째로 김제시를 찾았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약취 저감 시설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과 무병묘 씨감자 생산 첨단농업 종자사업소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방문한 곳은 약취저감 시설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다.



송하진 도지사가 28일 김제시를 찾아 박준배 김제시장과 함께 약취 저감 시설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방문하여 분뇨처리 현장을 둘러보고 약취저감 해결을 위해 축산인연합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도는 올해 전북 혁신도시 약취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인 김제시 축산밀집지역 약취 저감을 위해 퇴액비화 시설 밀폐화 및 자동분사시설 설치, 축산농가 안개분무시설 설치 등 15개 사업에 172억을 투자하여 대대적으로 약취 저감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축산업은 국민 식생활에서 중요한 식량자원이자 농촌경제의 핵심산업이었으나, 약취 발생 등 환경문제로 인해 이웃주민과의 불화와 최근에는 전북 혁신도시 약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도는 지원대책 마련 등 해결을 위해 전담 T/F팀을 운영해 오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이곳에서 분뇨처리현장을 시찰하고 약취저감 해결을 위해 축산인연합회원들과 퇴·액비화시설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용지축산인연합회 김경곤 회장은 "축사 내 안개분무시스템을 설치하면 약취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농가 스스로도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사육중인 축종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축종별 특성에 맞는 안개분무시스템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에, 송 지사는 "농가분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투자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약취 저감을 위한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취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도정 10대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 나가는 동시에, 축산농가 등이 중심이 되어 약취가 발생되지 않게 스스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약취도 잡고 축산업의 위상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 지사는 무병묘 씨감자 생산·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첨단 종자사업소를 방문하여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생산능가 대표 등과 함께 종자산업 1번지로서의 대도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첨단농업 종자사업소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종자산업 기반구축사

업'의 일환으로 2016년에 완공되어 지난 2년 동안 감자 보급종 생산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일반 감자종자에 비하여 바이러스 무균묘로 생산된 씨감자는 2차 재배 후 130%까지 수확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매년 1,290여 농가가 분양혜택을 받고 있다. 김태성 감자품종 연구회장은 "감자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종자사업소가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좀 더 많은 농업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감자품종 연구모임,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합심하여 씨감자 생산 보관 유통에 이르는 전반적인 감자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더불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대체부품 활성화로 자동차산업 위기극복 추진

글로벌자동차대체부품산업협회 출범... 도내 11개 기업 참여

전북도내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자동차대체부품산업협회(회장 제논전장 김용일 대표)'가 28일 출범했다.

본 협의회에는 제논전장, 창원금속공업, 대정, 코스텍, 탑피온, 유로오도, 우신산업, 한국몰드김제, 세명테크, 티앤지, 서흥전장 등 도내 자동차부품기업 11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지원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자동차융합기술원이 함께했다. 이번 출범을 통해 대체부품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보교류, 정책제안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외 공동

마케팅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전북도는 자동차부품 기업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제품 다각화 및 고객사 다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체부품(인증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로, 한국지엠 1차 협력사였던 창원금속공업(주)이 지난해 12월 전라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국내 최초로 국산자동차 대체부품(인증품) 1, 2호 개발을 성공하여, 제품을 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같이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

여 대체부품산업으로의 매출 다각화를 꾀함으로써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에 따른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대체부품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들에게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범한 글로벌자동차대체부품산업협회의 공조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우리 지역 자동차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대체부품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대체부품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경찰항공대가 창설된 지 35년 7개월 동안 7,500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전북의 자랑스런 하늘지킴이, 응원합니다"

전북경찰항공대 7500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쾌거

전북경찰항공대가 창설된 지 35년 7개월 동안 7,500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항공대가 창설 이래 도민들의 무사안전을 위한 인명구조 활동에서부터 범죄의자 추격검거 등 지상과 공조한 항공수사를 맡아 전북의 하늘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항공대는 지난 1983년 8월 2일 전주시 송천동 (구)육군항공대내에 HUGHES 500D 헬기 1대로 창설됐다. 이듬해인 1984년 5월 현 부지인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이전했고 1998년 5월 BELL-206 7인승 헬기를 새로

게 배치 받아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운용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항공대 업무 영역도 넓어졌다. 지난 2013년 7월에는 경기도 오산시 대형 삼점 지하주차장에서 어린이(당시 나이 7세)를 납치해 수색원을 요구하며 완주군 이서면 일대로 도주한 범죄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이어서 2015년 2월 11일 오후 2시 30분께 남원시 수지면에서 발생한 실종자 A모(당시 54세, 여)씨를 이서에서 발견해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항공대는 강도 용의자 추적, 실종

자 수색, 긴급환자 이송, 양귀비·대마 단속에 이르기까지 전북 치안을 지키는 하늘의 첨병으로 소임을 다해 왔다.

비행출동 건수도 급증해 최근 5년 동안 1156회 출동해 하늘을 날며 전북의 치안을 함께 지켜왔다.

권혜천 항공대장은 "하늘에서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도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디든 신속히 출동해 도민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완벽히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강석훈 기자

LX, 라오스 초청해 국내 선진기술 선보인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국내 선진 지적관리시스템과 첨단 공간정보기술을 라오스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X는 25일부터 5일간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토지국 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을 국내로 초청해 기술특강과 함께 현장견학, 선진문화탐방 등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첫날 방문단은 서울소재 LX글로벌센터에서 입교식을 갖고 국내 토지행정 정책에 관한 특강을 듣는다.

이튿날에는 안양시 동안구청과 LX 국토정보교육원을 둘러 현장시찰과

함께 측량프로그램과 드론시연을 체험한다. 이어 수요일에는 도면전산화와 한국형토지관리시스템(KLIS)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다음날에는 용산전자상가 등 선진문화탐방의 시간을 갖는다. 금요일에는 향후 양국 간 사업추진에 대한 토론의 시간이 있을 예정이다.

LX는 지난해 라오스 공간정보로드쇼 기간 중 천연자원환경부 토지국과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 분야 MOU'를 체결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공작개발원조(ODA)사업인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창학 사장은 "라오스는 토지정보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사전에 인지해 토지 관리와 관련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초청연수가 향후 관련 산업 확대와 함께 민간기업 해외진출의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해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라오스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은 토지를 등록하는데 있어 최적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국가 공간정보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사업이다. 라오스를 포함한 현재 동남아 국가들은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와 아날로그 기반의 토지등록으로 잦은 토지소유권 분쟁과 비효율적인 토지개발 계획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김우영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